

인간다운 사람이 되자



교장 민 병 준

우리가 황량한 황해벌 한 귀퉁이에 터를 닦아 '인항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첫 문을 연지 만 3년이 지난 뒤인 '90년도에야 우리는 우리의 얼굴인 교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후 해마다 교지는 우리학교 문화의 중핵으로써, 인항인의 정서를 담고, 인항의 문화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 '94년도를 마치며 우리는 또 하나의 교지 '인항 제5호'를 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94년도에 있었던, 1500 인항인의 생활을 담아 보았습니다. 나는 인항 5호가 인항인의 정서를 기록했다는 현재적 가치보다는

인항의 역사와 함께, 또는 인항의 역사속에서 선명히 남아 이 시대를 증언하리라는 미래적 가치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쁩니다.

되돌아 보면 '94년도는 불안과 충격을 주는, 대형사고가 이어졌던 기억하기조차 싫은 한 해였습니다. '94년에 우리는 남북 정상 회담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세계인의 관심도 받고, 여객기의 추락과 열차의 전복 또 성수대교의 붕괴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등으로 이어지는, 권위적 구정권의 성장 계일주의 그늘에 가려졌던 문제점이 노정되어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도 났으며, 한편으로는 지존파사건, 은보현사건, 그리고 부유한 집자식으로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사건, 그리고 법정중언 부부살인사건과 병사가 사격 훈련중 중대장을 조준사격한 사건으로 이어지는 패륜적이고 인간성을 상실한 엽기적 사건을 목도했는가 하면, 세금도둑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부패구조의 심각성을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창군이래 최초라는 장교 무장 탈영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안보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교육자로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목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것들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로인해 등교하던 몇 학생을 잃은 서울의 모학교 교사가 한 "이젠 너희들에게 정직하고 정의를 살라고

말 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한탄의 목소리입니다. 표정영직(表正影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곱이 바르면 그림자도 곱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이 바르면 아이들은 바른 것을 배울 것이며, 어른들이 곱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곱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어른들의 또 하나의 얼굴이며, 아이들에게 또 다른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곧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국가장래와 민족장래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육계에서 나이를 먹어 갈수록 교육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고, 세계인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며, 실제로 '94년도에는 국민 총생산이 세계 15위권인 당당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실로 통쾌하고 괄목할 성장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가 그만한 성장을 한 이면에는 우리 교육이 담당한 몫이 컸던 것에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정책은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반면, 출세지향적인 교육관과 고학력 선호사상을 낳아,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기 보다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치닫게 하는 폐단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재수생 문제와 소외자들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여, 전술한 반윤리적 비도덕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이 일련의 사건으로 교육계 외부에서, 교육계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교육계 자체도 반성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으며, 대학선발 시험도 암기위주의 학력고사에서 사고력중심의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뀐에 따라 우리 교육계는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기성세대가 준비할 몫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이에 나는 세가지 제안을 하며 말을 맺을까 합니다.

첫째, 학부모님께 제안합니다. 기성세대와 그 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성세대와 그 문화를 보며 그것을 닮아 갑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참견이나” 식의 천민적 자본주의 양태를 청산하고, 자제하며 공동체를 인식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삶에 동참합니다.

둘째, 교육계 종사자에게 제안합니다. 우리학교, 우리반 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인식하여,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대비하며, 모든 아이는 하나같이 사랑하고, 아이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겨안는 참 교사상을 확립해 갑시다.

셋째, 학생들에게 제안합니다. 소아적 기성세대를 뛰어넘고 포용하는 큰 인간이 되며, 새로운 가치를 늘 추구하고 탐구하며, 진취적이며, 새로운 모색에는 용감한,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